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3):194-201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성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¹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²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³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⁴

송대기¹ · 신상수² · 이소희¹ · 김석주³ · 전진용⁴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igma for Psychological Helps and Depression in North Korean Defectors

Dae Ki Song, MD¹, Sang Soo Shin, MPH², So Hee Lee, MD, PhD¹,
Seog Ju Kim, MD, PhD³, and Jin Yong Jun, MD⁴

¹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²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Korea

Objectives This study was implement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igma for psychological helps and depression.

Methods Two hundred defectors from North Korea were subjects in this study, including 28 males and 172 females. Both self-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Patient Health Questionnaires-9 (PHQ-9) was used to measure depression scores.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SSRPH) for stigma and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were used to determine social supportive levels that they recognize.

Results In the initial analysis, SSRPH was associated with PHQ-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stigma for subjects' psychological helps on depression showed that staying longer than five years in the third country, working, high MSPSS score, and low SSRPH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HQ-9.

Conclusion The stigma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for psychological hel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Perceived stigma may act as a barrier to the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psychiatric treatment who subjects in need of psychological help.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igma for psychological help and depression is importan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3):194-201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 Depression · Stigma · Psychological help.

Received January 24, 2016
Revised April 25, 2016
Accepted July 13, 2016

Address for correspondence

So Hee Le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245 Eulji-ro, Jung-gu,
Seoul 04564, Korea
Tel +82-2-2260-7292
Fax +82-2-2268-5028
E-mail psyhee@hanmail.net

서 론

1998년 71명에 불과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2천 7백여 명이 입국하였고 2015년까지 국내 누적 입국 인원이 2만 8천여 명에 달하였다.¹⁾ 북한이탈주민은 정신과적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²⁾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적 질환 및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³⁾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울 증상은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로서 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북한이탈주민 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울감 호소율이 22.4%로 나타났고,⁴⁾ 다른 연구에서는 취약 계층 남한주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감 호소율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도 그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데 적응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탈북 과정에서 겪는 외상 경험, 제3국에서의 장기간 체류, 남북한 문화적 차이, 남한 정착 후 자립의 문제, 실업, 외로움,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기타 문화 적응 등이 꼽히고 있다.⁶⁾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만의 경험이나, 사고방식, 이념과 같이 북한

에 거주할 때부터 생활화되고 관념화되어 온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에 대한 편견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감 호소율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⁷⁾

남한에서도 과거부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상당하였지만,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정신건강용어를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편견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⁸⁾ 지각된 낙인감과 우울증 치료 지속 여부를 연령별로 비교한 연구에서는 치료 시작 시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은 외래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또한 지각된 낙인감과 정신건강관리 시설 이용과의 연관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¹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타 변인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방 법

대 상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연구에 참여 의향이 있는 20세에서 70세까지의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175명, 사회복지시설에서 25명을 모집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장애나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절 차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개월 가량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에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면접을 시행하고 자가 설문 조사지를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스스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질문 시 설명을 해 주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연구의 전반적 프로토콜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쳤다.

도 구

사회인구학적 조사

연구진은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만들었으며 설문지에는 조사대상의 인구 특성, 교육 및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입국 연도, 성별, 연령, 재북 당시 학력, 제3국 체류 기간, 혼인 상태, 근로 여부, 종교, 소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이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는 남한에서 치료받았던 질환에 대해 적고 해당 진료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감을 평가하기 위해 우울 점수를 측정하였다. 우울 점수는 1999년 Spitzer 등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이하 PHQ-9)¹¹⁻¹³⁾를 활용하였다. PHQ-9는 일차 임상현장에서 접하기 쉬운 정신질환들을 감지하고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한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의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해당 문제를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설문 도구이다. “전혀 없음”이 0점, “며칠 동안”이 1점, “1주일 이상”이 2점, “거의 매일”이 3점으로 배점된 4점 척도로 평가된다. 0점에서 27점의 점수 분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에 대한 판정 기준은, 1번에서 9번까지 합산하여 0~4점은 우울하지 않음, 5~9점은 가벼운 우울증, 10~19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20~27점은 심한 우울증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0.931이었다.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SSRPH)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Komiya 등¹⁴⁾이 개발한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이하 SSRPH)를 활용하였다. 주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대상 연령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¹⁵⁾ 이 설문 도구는 정신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예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심리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사회적 낙인을 가져온다’,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증거이다’, ‘심리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호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심리적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제시한 사례와 같은 문제로 심리적 도움을 받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점수 배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이 부여된 5점 리커트로 되어 있다. 5점에서 25점의 점수로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0.781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¹⁶⁾를 토대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고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Zimet 등¹⁷⁾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ed Social Support(이하 MSPSS)를 활용하였다. MSPSS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의미 있는 주변 사람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4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후에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¹⁸⁾ 또한 5점 척도와 7점 척도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12점에서 60점의 점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12문항의 Cronbach α 는 0.949였으며, 가족 문항, 친구 문항, 의미 있는 주변 사람 문항의 각 Cronbach α 는 0.938, 0.892, 0.90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수정 작업을 거친 후 SAS 9.1(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0)

	Variables	Number (average)	Statistics, % (SD)
Control variable			
Gender	Male	28	14.0
	Female	172	86.0
Age	(years)	(47.67)	(11.11)
Entry year	2011–2013	68	34.0
	2009–2010	52	26.0
	Before 2009	80	40.0
Duration of stay in the third country	Straight to the South Korea	60	30.0
	Under 5 years	49	24.5
	Over 5 years	91	45.5
Current occupation	No	139	69.5
	Yes	61	30.5
Income (log)	(won)	(6.78)	(1.09)
Religion	No	68	34.0
	Yes	132	66.0
Current marital status	No	109	54.5
	Yes	91	45.5
Education in the North Korea	Under high school	125	62.5
	Over college	75	37.5
MSPSS	(point)	(41.33)	(12.18)
Independent variable			
SSRPH	(point)	(13.71)	(4.40)
Outcome variable			
PHQ-9	(point)	(10.60)	(8.33)
	<10	93	46.5
	>10	107	53.5

MSPSS :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SRPH :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들의 PHQ-9 및 SSRPH 점수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였다. 두 변수 간 상관 관계는 정규성이 확보된 연속변수 간 상관 관계는 Pearson 상관 분석을,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속변수 또는 명목형변수 간 상관 관계는 Spearma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PHQ-9의 severity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PHQ-9를 연속변수와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에 해당하는 10 점을 절단점으로 구분한 이분변수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상관 관계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SSRPH 점수와 PHQ-9 점수 간 연관성을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역시 PHQ-9를 연속변수와 이분변수로 구분하여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의 검정 기준은 0.05 수준으로 하였으나, 분석 자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0.1 이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변수도 추가로 표기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총 200명 중 여성 응답자가 172명(86%), 남성이 28명(14%)으로 여성의 조사 참여 비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7.67세(± 11.11)였으며, 최저 연령 19세부터 최고 연령 76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남한에 입국한 연도는 2009년 이전 입국자가 80명(40%), 2009~2010년이 52명(26%), 2011~2013년이 68명(34%)으로 나타났다. 제3국 거주 기간의 경우 응답자 중 남한으로 직행한 응답자가 60명(30%), 5년 미만 거주자 49명(24.5%), 5년 이상 거주자가 91명(45.5%)으로 제3국에 5년 이상 장기 체류 후 입국자가 가장 많았다.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0.5%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252만 원이었으며, 무소득에서 6000만 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법적혼인 또는 사실혼인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5.5%였고, 미혼, 사별, 이혼에 해당하는 사람은 54.5%로 나타났다. 재북 당시 학력은 대부분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SSRPH 평균점수는 13.71점(± 4.40)으로 나타났고, MSPSS 평균점수는 41.33점(± 12.18)으로 확인되었다. PHQ-9의 평균점수는 10.60점(± 8.3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0점이 넘으면 우울증의 위험이 있고, 20점이 넘을 경우 심각한 우울증의 위험이 있어 의사의 정밀 진단을 요구한다. 이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46.5%인 93명이 10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또는 이미 위협적인 정신건강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s with depressive mood (two methods used)

	Gender ①	Age ②	Entry year ③	Duration in third ④	Occupation ⑤	Income ⑥	Marital status ⑦	Religion ⑧	Education ⑨	Social support ⑩	SSRPH ⑪	PHQ ⑫	PHQ ⑬
①	1												
②		1	0.09	0.27 ^s	0.05	0.04	-0.13*	0.02	-0.07	-0.05	-0.03	0.04	0.06
③			1	-0.06	-0.10	-0.21 ^s	-0.09	-0.06	0.19*	-0.08	0.11	0.02	0.05
④				1	-0.01	0.11	0.19*	-0.04	-0.05	-0.02	0.12	0.04	0.07
⑤					1	0.04	0.10	0.07	-0.08	-0.18*	0.05	-0.02	-0.01
⑥						1	0.14*	0.07	0.20*	0.17†	-0.08	-0.29 ^s	-0.29 ^s
⑦							1	0.11	0.09	0.22*	-0.11	-0.12*	-0.18†
⑧								1	0.10	0.31 ^s	0.01	-0.13*	-0.17†
⑨									1	0.06	0.06	0.02	-0.01
⑩										1	-0.04	-0.22*	-0.18*
⑪											1	-0.50 ^s	-0.39 ^s
⑫												1	0.22*
⑬													1

* : $p < 0.05$, † : $p < 0.01$, ^s : $p < 0.00$. SSRPH ⑪ : Self Stigma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Scale, PHQ ⑫ : continuous variables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s Scale, PHQ ⑬ : binary variable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s Scale. SSRPH ⑪ :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PHQ ⑫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SRPH and depressive mood (PHQ-9) : results from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 1)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2) (n=200)

	Model 1		Model 2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ntercept	18.668 [§]	<0.001	1.551	0.364
Gender (ref. Male)				
Female	1.493	0.319	0.520	0.312
Age	-0.041	0.401	-0.020	0.246
Entry year (ref. 2011-2013)				
2009-2010	3.107 [†]	0.021	0.892 [*]	0.059
Before 2009	1.157	0.352	0.631	0.149
Duration of stay in the third state (ref. straight)				
Under 5 year	-2.525 [*]	0.071	-0.600	0.209
Over 5 year	-3.182 [†]	0.012	-0.895 [†]	0.045
Current occupation (ref. no)				
Yes	-4.101 [§]	<0.001	-1.472 [§]	<0.001
Income (log)	0.497	0.342	0.232	0.188
Religion (ref. no)				
Yes	0.656	0.526	0.058	0.873
Current marital state (ref. no)				
Yes	0.562	0.611	-0.320	0.404
Education in the North Korea (ref. under high school)				
Over college	-1.196	0.280	-0.145	0.704
MSPSS	-0.326 [§]	<0.001	-0.083 [§]	<0.001
SSRPH	0.343 [†]	0.003	0.097 [†]	0.016
Adjusted R ² (-2LL)	0.333		(211.976)	
F (chisq)	8.72 [§]		(64.302) [§]	

* : p<0.1, † : p<0.05, * : p<0.01, § : p<0.001. MSPSS :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SRPH :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상관 관계

정규성을 확보한 연속변수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정규성을 확보하지 않은 연속변수 또는 명목변수 간 상관 관계는 Spearman 상관 분석 결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령, 나이, 입국 연도, 제3국 거주 기간, 종교 등은 PHQ-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PHQ-9를 연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근로 여부($r=-0.29$, $p<0.00$), 소득($r=-0.12$, $p<0.1$), 결혼 여부($r=-0.13$, $p<0.1$), 학력($r=-0.22$, $p<0.01$), MSPSS($r=-0.50$, $p<0.00$)는 PHQ-9와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RPH($r=0.26$, $p<0.00$)와는 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변수로 PHQ-9를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도 근로 여부($r=-0.29$, $p<0.00$), 소득($r=-0.18$, $p<0.05$), 결혼 여부($r=-0.17$, $p<0.05$), 교육($r=-0.18$, $p<0.01$), MSPSS($r=-0.39$, $p<0.00$)로 PHQ-9와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RPH($r=0.22$, $p<0.01$)와는 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성

대상자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정한 결과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PHQ-9의 응답치를 연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Model 1의 결과에 의하면 다중회귀분석 결과 PHQ-9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2009년 이전 입국자 대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입국한 경우($B=3.107$, $p<0.021$), 남한으로 직행한 응답자 대비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5년 이하인 응답자($B=-2.525$, $p<0.1$)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B=-3.182$, $p<0.05$),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B=-4.101$, $p<0.001$), MSPSS($B=-0.326$, $p<0.001$)와 SSRPH($B=0.343$, $p<0.01$)였으며 그 외의 통제변수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PHQ-9의 응답치를 이분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Model 2의 결과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입국(B=0.892, $p<0.1$),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B=-0.895, $p<0.05$),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B=-1.472, $p<0.001$), MSPSS(B=-0.083, $p<0.001$), SSRPH(B=0.097, $p<0.05$)로 나타났다. 두 분석 결과 모두 SSRPH 점수의 증가와 PHQ-9 점수 간 연관성이 있었다.

고 찰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부분의 정신건강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울감과 여러 연관 요인을 보고자 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낙인’은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에서부터 야기된 것으로 보는데,¹⁹⁾ 사회적 낙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인간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가치 절하하거나, 결함을 수용하거나, 잘못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며²⁰⁾ 이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감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자기 낙인의 경험은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²¹⁾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²²⁾에서는 지각된 낙인은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낙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낙인의 영향은 자존감의 손상, 사회적 지지체계의 약화, 직업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 정신질환을 자신의 병으로 인정하기를 꺼려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다.²³⁾ 수정된 낙인이론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낙인은 사회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내면화되어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각된 낙인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차별 경험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의 1/4 정도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보도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정신질환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를 방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²⁵⁾

지각된 낙인감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며,²⁶⁾ 지각된 낙인감과 자존감 사이의 연관성으로 인해 우울감을 야기하고 이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다.²⁷⁾ 심각한 우울감은 지각된 낙인감의 예측인자로 작용하는데²⁸⁾ 우울증의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심각한 우울감과 연관된 인지 왜곡은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함으로써 더 큰 낙인감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⁹⁾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한국의 정신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은 자신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인지적 왜곡을 강화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존감의 손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지지체계의 약화 등의 매개 요인을 통해 우울감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제변수로서 고려되었던 변수 중에서 근로활동 여부와, 사회적 지지는 PHQ-9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우울감이 낮았는데, 이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이다.³⁰⁾ 더불어 중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³¹⁾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주요 우울증의 보호 요인으로 발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증가가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의 차이는 있지만 타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증가가 우울감의 완화에 영향을 주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¹⁶⁾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남한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고립감을 느낀다고 알려진 기존 연구 결과³²⁾를 감안할 때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강화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케 한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³²⁾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서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좌절과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상실감이 클 수 있다는 연구³³⁾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비교적 사회적인 성취나 새로운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저연령층이 남한 사회에서 빨리 적응하고 우울감도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령의 차이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또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높다는 난민대상 연구와는 대비되는 것인데³⁴⁾ 일반적으로 난민대상 연구에서 여성의 우울감이 높은 것은 여성들이 주로 겪게 되는 외상 경험의 성격이나 상실 혹은 외상 경험의 빈도와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탈북 주민의 우울감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특수한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것은 남한 사회가 탈북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실을 보완할 만한 문화적 이

점과 사회적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점이 없었다. 이것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대처 작용으로 작용해 우울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인데^{35,36)} 이는 북한사회에서의 배움의 경험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심리적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성취에 대한 더 높은 기대를 갖게 하고 현실적 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더 큰 좌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학력 수준과 기대 수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증가로 인한 우울감 완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입이 많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건강이 좋다는 난민 연구 결과³⁷⁾와는 차이가 난다. 근로활동 여부가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근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이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근로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교류가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으로의 직행에 비해 제3국 체류 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북한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 등 인권 유린을 많이 경험하고 제3국에서의 이중결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많다는 연구³⁸⁾를 볼 때 탈북 초기에는 체류지에서의 적응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정착지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대상자들이 상당수 여성(86%)이었고, 무작위로 추출된 대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의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후에는 보다 크고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링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기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충분히 확보된 사례와 보완된 설문 도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낙인감의 독자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이 클수록 우울감에 부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낙인감은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적 치료

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우울감과 낙인감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저해 문제는 크지 않다고 전제할 경우,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편견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착 초기에서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 개선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을 전달함으로써 종전에 가지고 있던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 북한이탈주민 · 우울 · 낙인 · 심리적 도움.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3년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임(NMC2013-PR-03).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UniKorea.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cited 2016 Aug 15]. Available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 2) Lee Y, Lee MK, Chun KH, Lee YK, Yoon SJ.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 J Prev Med* 2001;20:225-229.
- 3) Min SK, Jeon WT, Kim DK.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6;45:269-275.
- 4) Kang HY, Byeon SH, Shin SH, Kim HC, Lee SH, Yoo SY. A study of psychiatric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visited a psychiatric clinic. *Sleep Med Psychophysiol* 2012;19:35-41.
- 5) Um TW. A strategy of the mental health for the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residents. *Unification Policy Stud* 2005;14:297-324.
- 6) Han IY. Depressive traits of North Korean defectors. *Ment Health Soc Work* 2001;11:78-94.
- 7) Kim SJ, Park YS, Lee H, Park SM. Current situation of psychiatry in North Korean: from the viewpoint of North Korean medical doctors. *Korean J Psychosom Med* 2012;20:32-39.
- 8) Kim BC.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Ment Health Policy Forum* 2010;4:19-37.
- 9) Sirey JA, Bruce ML, Alexopoulos GS, Perlick DA, Raue P, Friedman SJ, et al. Perceived stigma as a predictor of treatment discontinuation in young and older outpatients with depression. *Am J Psychiatry* 2001;158:479-481.
- 10) Golberstein E, Eisenberg D, Gollust SE. Perceived stigma and mental health care seeking. *Psychiatr Serv* 2008;59:392-399.
- 11) Kroenke K, Spitzer RL, Williams JB. The PHQ-15: validity of a new measure for evaluating the severity of somatic symptoms. *Psychosom Med* 2002;64:258-266.
- 12) Park SJ, Choi HR, Choi JH, Kim KW, Hong JP.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Anxiety Mood* 2010;6:119-124.
- 13) An JY, Seo ER, Lim KH, Shin JH, Kim JB.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creening tool for depression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J Korean Soc Biol Ther Psychiatry* 2013;19:47-56.

- 14) Komiya N, Good GE, Sherrod NB.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 Couns Psychol* 2000;47:138-143.
- 15) Pinto MD, Hickman RL, Thomas TL.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SSRPH): an examination among adolescent girls. *West J Nurs Res* 2015;37:1644-1661.
- 16) Kim MR.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Korea J Soc Welf* 2005;57:193-217.
- 17) Zimet GD, Dahlem NW, Zimet SG, Farley G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 Pers Assess* 1988;52:30-41.
- 18) Cheng ST, Chan ACM.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dimensionality and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s Individ Differ* 2004;37:1359-1369.
- 19) Goffman E.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1963.
- 20) Crocker J, Major B.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 Rev* 1989;96:608-630.
- 21) Corrigan PW, Watson AC. Understanding the impact of stigma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World Psychiatry* 2002;1:16-20.
- 22) Shin JS, Lee GH, Kim KS, Lee YI. The impact of perceived stigma on depress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Choongbuk. *J Community Welf* 2011;37:361-385.
- 23) Lee KH. Study on the stigma abou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2001.
- 24) Seo MK, Kim JN. Effects of perceived stigma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the mental illness. *Korea J Soc Welf* 2004;56:173-194.
- 25) Cho SY, Kim JM. Network TV news coverage of mental illness. *Korean J Journal Commun Stud* 2010;54:181-204.
- 26) Cooper-Patrick L, Powe NR, Jenckes MW, Gonzales JJ, Levine DM, Ford DE. Identification of patient attitudes and preferences regarding treatment of depression. *J Gen Intern Med* 1997;12:431-438.
- 27) Link BG, Struening EL, Neese-Todd S, Asmussen S, Phelan JC. Stigma as a barrier to recovery: the consequences of stigma for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Psychiatr Serv* 2001;52:1621-1626.
- 28) Pyne JM, Kuc EJ, Schroeder PJ, Fortney JC, Edlund M, Sullivan G.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igma and depression severity. *J Nerv Ment Dis* 2004;192:278-283.
- 29) Beck AT.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1967.
- 30) Um TW.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Health Soc Welf* 2012;32:92-121.
- 31) George LK, Blazer DG, Hughes DC, Fowler N. Social support and the outcome of major depression. *Br J Psychiatry* 1989;154:478-485.
- 32) Cho YA, Jeon WT, Yoo JJ, Um J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year follow-up study.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5;17:467-484.
- 33) Buchwald D, Manson SM, Dinges NG, Keane EM, Kinzie JD.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established Vietnam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detection in a primary care setting. *J Gen Intern Med* 1993;8:76-81.
- 34) Hauff E, Vaglum P. Organised violence and the stress of exile. Predictors of mental health in a community cohort of Vietnamese refugees three years after resettlement. *Br J Psychiatry* 1995;166:360-367.
- 35) Sadowsky GR, Carey JC.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related demographics and cultural attitudes of an Asian-Indian immigrant group. *J Multicult Couns Dev* 1988;16:117-135.
- 36) Williams CL, Berry JW.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 Psychol* 1991;46:632-641.
- 37) Beiser M, Hou F. Language acquisition, unemployment and depressive disorder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a 10-year study. *Soc Sci Med* 2001;53:1321-1334.
- 38) Lee YS, Koo HW, Han IY. Systemic reviews of North Korean refugees: women's distinguishable experience. *Korean J Unification Aff* 2011;23:147-194.